

“국립 의대는 공모가 최적, 공정 진행”

전남지사 호소문 “과도한 경쟁 자제해야”...순천지역 반발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모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국립 의대는 30년 묵은 한(恨)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며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국립 의대 설립은 30년 만에 얻어낸 기회로 꼭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소문은 전남 의대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지 꼬박 보름 만이다. 전남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한 ‘거도(擧道)적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 의대 유치는 놓고 벌어지고 있는 목포대와 순천대 간, 법위를 넓혀 동부권과 서남부권 간의 지역 갈등과 소(小)지역주의에 대한 일종의 ‘자제령’으로도 읽힌다.

특히 김 지사는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며 “만일 계

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 등과 맞물려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 일정 상 촉박해 공모 방식을 통한 추천대학 선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는 일부 주장은 교육부가 현재 공모 방침을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고 신청서를 받아들일 리도 만무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전남도 공모를 패싱하고 교육부 공모에만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한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순천대는 이날 전남도의 공모 철회를 요구한 뒤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독자 신청 의지를 공식화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설립추진단(단장 박병희)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공모 방식의 철회를 촉구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갖춘 의대 신설 절차를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호 기자



해남 “두륜산 녹차밭 내일 열려요”

17일 해남군은 곡우절인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두륜산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군민들에게 녹차밭을 개방하고, 녹차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남군 제공

낮 최고 27도 ‘초여름’...미세먼지 나쁨

“야외활동 자제...외출시 마스크 착용”

18일 목요일은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겠다. 오늘 전국을 뒤덮은 황사는 서쪽지방부터 점차 열려지겠다.

기상청은 17일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며 “내일은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2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22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2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는 부산·울산·경남은 ‘매우나쁨’, 강원권·대전·세종·충북·광주·전남·대구·경북·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풍광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지난 16일부터 서쪽 바다로 유입되면서 황사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 정체 상황은 18일 까지 예보됐다”며 “야외 활동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주 기자

21대 국회, 광주·전남 현안 법안 폐기 위기

광주·전남 현역 의원 18명 중 12명 낙선

인공지능·풍력발전·인구감소 특별법 낮잠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현안사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 18명 중 광주 7명, 전남 5명이 낙선해 남은 회기 중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

된다. 광주는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1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분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광주시의 주력사업인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견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지역 현안사업 법안도 상당수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전남도의 대표 사업인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은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3년이 다 되도록 심의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풍력발전산업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시 인구 감소 지역을 고려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안도 상임위 논란 끝에 계류 중이다. 국가기념일 지정과 특별 재심 근거를 마련하고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풍력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지역 존폐와 관련된 법안이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5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속도	2면
野,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3면
춘천목 먹거리 줄줄이 인상	4면

전국 최대 규모 2000평 스포츠센터 상무지구

파라드시티

QED골프

Fitness

- 광주유일 실내 100m트랙
- AI 디렉트

1:1PT

- 개인PT룸
- 스트레칭존

Tennis

- 스크린 연습장
- 실내 정식 코트
- 실외 코트 가능

Golf

- 1000평 규모
- 31타석

평일 06시~24시 / 주말 08시~22시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음 상가 2,3층 파라드시티(광주CGV 건너편)
 문의 062 374 0088

1000평 규모 31타석 및 좌타 2개 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